Vol. 11 | 2020 AUTUMN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 조건은 '사용자 참여 설계'

Class Know-How

학교도서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요?
Zoom으로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림으로 표현, 생각에 날개를 달다

Hot EduTech

비대면 메이커수업 해보니 걱정 눈 녹듯 사라져

Interview & People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Teacher Life

작은 펜 속에 우주가 숨어 있었다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0년 티처빌 회원등급제 도입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설레고 행복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반짝이는 햇살을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반짝이는 사소한 순간들을 찾아
하루 하루를 즐겁게 살아내다보면
정말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사진. 정혜란 서울금옥초등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인천대공원

CONTENTS

Vol.11 | 2020 AUTUMN

Zoom in Focus

06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 조건은 '사용자 참여 설계' • 김태은

10 공간혁신의 중심에 '사람' 있다 • 김형태

Class Know-How

14 학교도서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요? • 이덕주

18 ZOOM으로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이 정

22 대면 시간이 짧은 만큼 더 애틋해진 것 같습니다 • 공승규

2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학생 중심 참여형 블렌디드 러닝으로 준비 완료 • 이슬기

28 그림으로 표현, 생각에 날개를 달다 • 신건철

Hot EduTech

32 비대면 메이커수업 해보니 걱정 눈 녹듯 사라져 • 연제현

발행처 테크빌교육㈜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통권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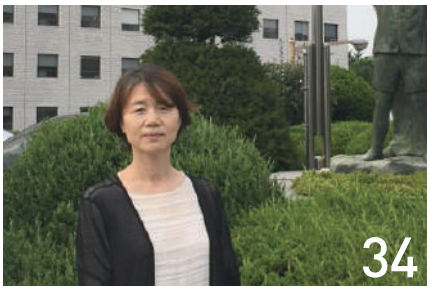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e.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People

34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 이화성

38 건축사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때입니다 • 채가을

42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에듀테크'… 오늘, 그리고 내일은? • 서명훈

Teacherville News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46 2020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48 〈쌤동네〉 9월 리뉴얼 오픈

50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Teacher Life

52 작은 펜 속에 우주가 숨어 있었다 • 차유미

56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 이 량

Book

60 소환된 미래교육 / 상상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 한국사 놀이 수업 백과

Cartoon

62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 송정섭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 조건은 '사용자 참여 설계'

학생들이 더 머물고 싶어지도록 해야 한다

글. 김태은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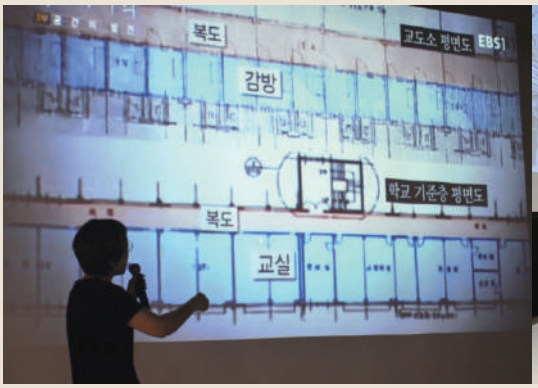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공간혁신과 미래학교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고 있다. 지금은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무릇 빠른 변화는 많은 변수를 불러오기에 본질을 기억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혁신의 본질은 무엇일까? 김태은 위원은 '학생들이 더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말한다. 아마 선생님들이 학교 공간혁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2시간 더 머물고 싶은 학교를 시작으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영(領)'을 발표했다. "학생들을 2시간 더 학교에 머물게 하라." 이때 학교는 무엇을 준비할까? 물론 준비 전에 '왜'가 먼저 떠올라야만 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수행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방역과 학습의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학교가 준비하는 과정처럼.

덴마크 이야기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초등 공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개혁안을 덴마크 의회에 제출(2012. 12. 4.)했다. 핵심 내용에는 수업시간 연장이 포함되었다. 글쓴이가 당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무회의 시간이었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을 2시간 더 학교에 머물게 하라"를 "학생들이 2시간 더 머물고 싶은 학교란?"으로 협의 중이었고, "그렇다면 학교에는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할까?"로 의제를 좁혀가고 있었다.

교육개혁과 공간. 그들에게 학교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7년 전, 글쓴이가 공간혁신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이다. 이후 혁신학교에서, 지자체에서, 교육부에서 '공간'을 화두로 기획과 실행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교육 대전환의 구심점, 학교 공간혁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간혁신과 미래학교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대전환의 방법으로도 공간혁신을 꼽았다. 학교시설만의 정책이 아닌 통합과제의 주문은 행정 칸막이를 허물기 시작했다.

교육시설,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 학점제형 환경조성, 예술교육, 정보화 교육, 미래융합 등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과제들이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교육으로 묶였다. 통합추진을 통해 민주·혁신·예술·미래 등 개별 과제들이 풀릴 수 있는 조건과 운동력을 확보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용자 참여 설계가 중요

공간혁신 설계과정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을 부수고 또 무엇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 공간을 만드는 활동에는 '예술'적 감성이 발현되고, 이 공간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그래서 공간혁신의 핵심 조건은 '사용자 참여 설계'다. 목표는 '시민의 탄생', 그러니까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교사·지역민 등 '참여 사용자'들이 "단순히 거주하는 '인구'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민'"이 되어 공간의 주권자이자 미래교육의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궁극적인 성취과제로 설정했다.

생활SOC나 뉴딜사업에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와 같다.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그 달라짐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해서 '참여'가 전면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집단이나 관료가 중심을 차지했다. 시민의 삶터를 이윤, 혹은 관료적 성과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공간은 사랑받기 어렵고, 사랑이 부족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호응해 교육부는 이른바 '교

약력 김태은

- 現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前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정책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 저서 『학교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도서관』, 『교사, 선생이 되다』, 『너를 만나는 시 1, 2』

육뉴딜' 맥락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비전을 선언했다. "오늘의 학교 사용자가 미래를 디자인합니다"이다.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보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욱더 불확실해진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학습환경의 창조자가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공간혁신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기저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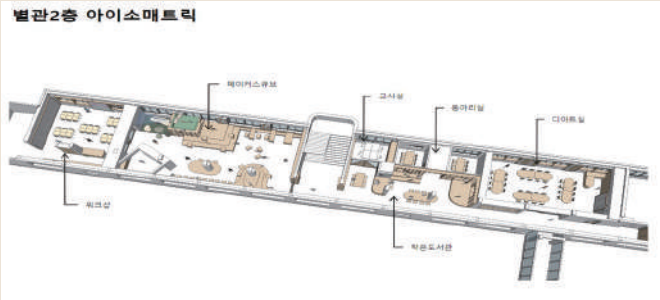
그런데도 왜 공간혁신이 교육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지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간혁신이 행정명령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교육 전환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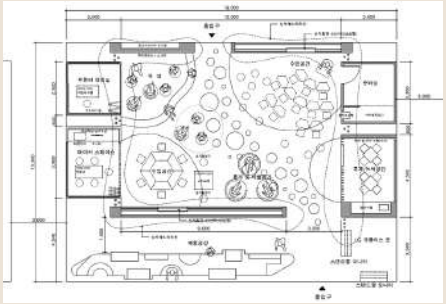
공간혁신이 교육 전환의 중심인 이유

첫째는 변화의 실체가 눈으로 확인되는 경험의 힘이다. 그동안 혁신 교육, 행복 교육, 마을 교육 등 여러 종류의 교육 혁신 시도들이 있었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은 주도자가 사라지면 멈춘다. 하지만 공간혁신이 결합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다. 그 실체와 교육의 주체들이 부단히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변화는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공간에 경험의 흔적을 강하게 남긴다.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축소될지라도 경험은 시간과 세대로 이어진다.

둘째는 적잖은 돈이 들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일어나는 '권력 행위', '책임 행위'의 힘이다. 소비와 수용에서 결정과 집행으로 주체의 위치가 바뀐다. 책임 있는 권력 행위를 경험한다. 또한 공간혁신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주체들의 전망과 의지를 끄집어내는 열린 퍼포먼스다. 책상 앞에 놓인 교과서가 아니라 현재의 공간으로 눈을 돌려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전혀 다른 행동을 요구한다. 공간이 묻고 교육이 답하는 지금껏 없는 상황이 시작되면서 상상과 창조의 경험을 갖는다. 68혁명의 구호 "상상력에게 권력을"의 실현이다.

첫째와 둘째의 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기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그러므로 더 보람 있고 값지다. 무엇보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 보내는 공간의 창조자로서 '나라는 존재'를 무겁고 귀하게 확인하게 된다. 교육의 '시민적 주체'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시민적 주체가 튼튼하게 서면 '미래학교'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는 코로나19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라





> 교육개혁이라는 과제를 공간으로 풀었던 그들에게 학교의 공간은 '학생들의 마음'을 맨 앞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는 새로운 기술적 과제해결의 가속화 페달을 밟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쉽게 결정된다.

또 공간혁신의 방향이 분명하면 거기에 접목할 미래학교의 '기술'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술'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머무른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미래학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학습과 기술'의 결합이다. 그러나 '기술'이 본질은 아니다. 면허가 없고, 윤리적 기준이 허약하면 드론기술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 글에서 기술로 인한 수업 변화의 가능성이나 사례를 사실상 언급하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교사들이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는 '학생들', 공간혁신도 마찬가지

어려운 시기다. 새로운 과제가 아무리 더욱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있더라도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즈음 글쓴이는 "다 잊고 본질만 생각하자"라고 제안한다. 처음처럼. 7년 전 덴마크 교무회의로 돌아가 본다. "머물게 하라"라는 과제를, 그들은 "머물고 싶게"로 풀었다. 이 대목에서 글쓴이는 '머물고 싶게'에 주목한다. 어른들의 관리·통제가 아닌 학생들이 더 머물고 싶은 학교, 그 머무는 시간 동안 맑은 공기처럼 들이마실 수 있는 배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교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교육개혁이라는 과제를 공간으로 풀었던 그들에게 학교의 공간은 '학생들의 마음'을 맨 앞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지금 우리 역시 그러하다. 방역과 학습. 온라인등교, 원격교육 등의 전환 속에서 교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오롯이 '학생들의 마음'을 앞자리에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늘 만드는 미래가 있다. Ⓣ

공간혁신의 중심에 '사람' 있다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학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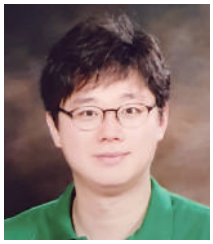
글. 김형태 시흥능곡초등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앞당겨진 공간혁신과 미래교육의 만남

코로나19로 학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기존의 교육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 교육을 이끄는 화두가 되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교를 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에듀테크나 공간혁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교육적 움직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에듀테크는 교육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혁신은 열린 교실이나 교과교실제와 같이 교실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그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앞당겨 소환한 미래는 공간혁신과 에듀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공간혁신의 의제를 물리적 공간에 디지털, 가상공간을 더하는 방향으로 확장했으며, 지금은 미래학교 준비로까지 아젠다가 확장된 상황이다.

기존의 학교 리모델링과 공간혁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참여 설계와 같이 교육공동체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용자 참여 설계 방식을 도입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공간혁신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바꾸고 싶은 공간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사용한다.

물론 이 과정은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관계, 공동의 비전, 협력적인 학교문화, 학교 안팎의 여러 구성원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오랜 기간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구현된다.



약력 김형태

- 現 시흥능곡초등학교 교사
-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 공간혁신 TF위원
-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운영위원
- 前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대표
- 前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집필 및 원격연수 개발
- 저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 외 다수

[교육과정 중심의 특별 교실]
1. 스마트교실.
2. 프로젝트 교실.
3. 언플러그드 교실.

시흥 군자초에 만들어진 특별한 교실

2015년부터 경기도 시흥의 군자초등학교는 혁신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및 스마트교실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3개의 특별교실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학교 공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다양한 상상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원더랜드와 글로벌 드림랜드를 구축하고 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변형 가능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학생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교내 체험 교실이라는 공유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교 학생들뿐 아니라 타교 학생들, 지역사회의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주말 체험 교실이나 학기 중 체험학습 센터로 활용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창의적 마을 교육 과정을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간혁신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과 인식의 전환

공간은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나 교사별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 활동 운영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교육부의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공모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공간혁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이 중요한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혁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의 공간혁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정리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도서관 모델을 기획하고 '시끄러운 도서관'을 콘셉트로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했다.

공간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비전·철학·고민·교육과정·문화·공동체 등이 공간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와 공간혁신을 선도했던 교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우선 해외의 다양한 선진학교의 공간과 문화를 학교에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2019년 공무원 국외연수에 공모했다. 운 좋게 국외연수에 선정되어 스웨덴과 덴마크에 교육 전문직원·교육청 행정직·교사 9명이 7일간의 여정을 함께했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각 지역이나 학교의 특색과 요구에 맞게 공간들이 설계되었는지 볼 수 있었다. 공간을 교육과정의 중요한 지원체계라 여기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를 사용하거나 학교별 특색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인사이트(영감)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 공간혁신에서 교실 공간혁신으로 방향 전환

사람이 교체되면 급격하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하여 공간혁신을 시스템화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공동체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경험했다. 학교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증·개축의 연도가 맞지 않아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공모할 수 없었고, 그동안의 준비에 교육공동체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컸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교실 공간혁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학생들이 가장 오래 생활하고 대부분의 교육 활동과 쉼이 이뤄지는 교실에서부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학생들과 공간 주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급 공간을 어떻게

[2019년 공무원 국외연수 보고서 중]
4. Sollentuna bibliotek (도서관).
5.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Nordhavn.

[쉘터 프로젝트 및 동네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6. 쉘터 프로젝트.
7.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존엄·평등·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만들고 싶은지, 수업이나 휴식의 욕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토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공간혁신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가 없던 아이들은 오히려 공간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수업 속에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생각과 다양한 자료를 보고 안목을 넓혀가면서 우리만의 프로젝트인 쉘터(Shelter, 쉼터)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했다. 교실은 온전히 아이들에게로 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교실에서 머무는 공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교실 내의 유휴공간을 쉘터로 만들었다. 교실 공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작은 시민사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또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동네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아이들과 지역운동가들과 함께 진행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혁신, 그리고 미래학교

OECD education 2030에서 말하는 미래 교육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선도하는 국가들에서 보여주는 스마트교육·에듀테크·온라인 학습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중심에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존엄·평등·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과 배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도움을 받으며,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많은 선생님이 공간혁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이뤄지며 친구들과 떠들고 협력하면서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였으면 한다. Ⓣ

학교도서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요?

영상제작·북카페·보드카페·찜질방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글.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보통 도서관 하면 '엄숙', '조용히'란 단어와 벽면 가득한 책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공간의 기능은 오로지 '독서'이며, 책상과 의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꼭 독서만 하는 공간이어야만 할까?' 교육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학교 공간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야 할 때다.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의 규모는 교실 10칸 크기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서관이 지닌 프레임을 깨고 지금은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공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송곡여고 도서관은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는 공간

송곡여고 도서관에는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이 네 개 있다. 이곳에는 각종 유무선 마이크, 조명, 노트북, 패드, 관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장비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 설치된 조용한 방과 컴퓨터를 활용해 방송제작, 녹음을 진행한다. 교사들은 영상 제작능력이 뛰어나 혼자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늦은 밤까지 남아서 수업 영상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교사들에게는 도서관 열쇠를 공유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사서교사의 마음도 뿌듯하다.

동시에 과정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 교실

도서관에선 상시로 수업이 진행된다. 새로 만든 북카페엔 사회과학·역사·여행에 관한 책들과 노트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1학기 중엔 고3 사회문제 탐구 수업이 진행되었고, 2학기엔 고3 여행 지리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매시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그 과정을 수행평가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고, 발표물을 작성한다. 반면에 교사는 이런 학생들을 관찰하고, 개별지도하고, 기록한다. 도서관은 계속되는 수업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서관 문을 닫을 수 없었다. 널찍한 도서관은 교실보다 거리 두기가 유리하고, 1인 1노트북으로 개별화된 활동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마을 교육의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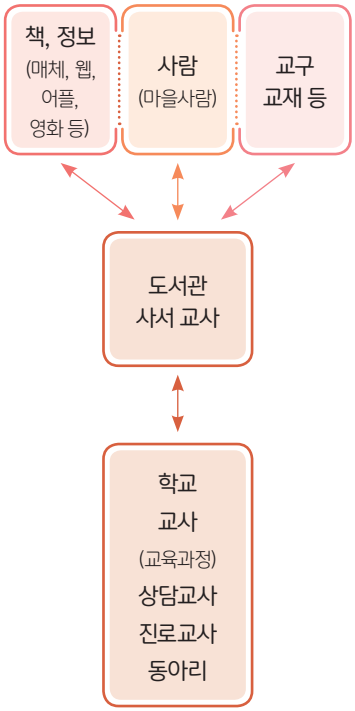
정규 수업시간에는 마을 언니들이 와서 성교육, 임신 출산교육을 한다. 제2

1. 도서관은 교실보다 거리 두기가 유리하고, 개별화된 활동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2.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머리도 식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3

4

외국어 수업시간엔 마을의 이주여성들이 와서 각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기술·가정시간엔 마을의 어르신들이 와서 옛날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자율시간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오셔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마을까지 나가지 않아도 마을 분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고, 마을 분들은 교실까지 가지 않아도 도서관에만 오면 학생들을 만나고 직접 교육할 수도 있다.



송곡여고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1) '엄숙'을 깨는 교사들의 수다 공간

도서관은 온·오프라인의 연구공간 수업 제작공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스스로 커피 기계를 조작해서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원두 재료에 대한 기부금을 내고 점심 후엔 꼭 들려서 동료들과 커피를 나누며, 잠시 숨을 돌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2) 아이들에겐 따뜻한 찜질방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서 피곤함에 찌든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뜨끈한 온돌에 등 따시게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피곤을 풀고 갈 수도 있다.

3) 모두를 위한 추억의 보드카페

도서관 내에는 100여 개의 보드게임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범인을 잡기도 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3. 도서관에선 상시로 수업이 진행된다.
4. 도서관은 선생님들이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하다.

4) 자유로운 피아노 연습실

도서관에는 떠들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없다. 도서관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서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간다. 가끔 울려 퍼지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5) 고깃집으로 무한변신

인덕션과 다양한 조리도구도 갖추고 있다. 특별한 때에 삼겹살과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서 놀기도 한다. 라면은 기본이다.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불문율도 깨진 지 오래다. 아,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자제 중이다.

특별한 도서관이 평범한 도서관이 되는 그날까지

송곡여고 도서관은 교실로 계산하면 2개 층에 걸쳐서 교실 약 10칸의 공간을 갖고 있다. 사서 교사도 있지만, 공간이 넓다 보니 학교 교육에 다양한 기능과 지원을 해주고 있다.

와보라! 그리고 제발 따라 해보라. 송곡여고 도서관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도서관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오길 바란다. Ⓣ

약력 이덕주

- 現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現 전교조 사서교사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
- 前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부대표
- 저서 『학교도서관활용수업』(공편)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공저)
  『사서가 말하는 사서』(공저)
  인정교과서 『도서관과 정보생활』(공저)

[초등 쌍방향 수업]

ZOOM으로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글. 이 정 대광초등학교 선생님

퓰리처상을 받은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교육도 온라인 수업을 적용 중이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1학기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2학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1학기 동안 100%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이정 선생님에게 수업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학교 현장의 대혼란

올해 3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전쟁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3월에 개학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만 떼 놓고 보면 교육부·교육청·학교는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입학과 개학을 미루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했다.

학교는 그동안 생소했던 온라인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기타 여러 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이 무엇인지 안내했고, 학교는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선택지로 제시된 온라인 수업은 크게 3가지로 콘텐츠 중심(녹화 강의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었다.

약력 이 정

- 現 대광초등학교 교사
- 2007, 2009 수학교과서 집필
- 서울시 과학전시관 연수 강사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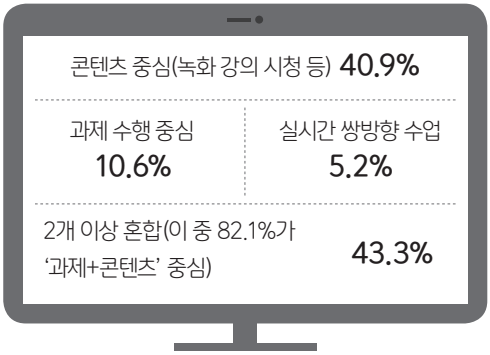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 방식 중 학생들과 가장 잘 소통할 방법을 논의한 결과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시간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인 'Zoo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google이 만든 'Hangout'이나 MS가 만든 'Microsoft Teams' 등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고, 교사가 안내한 회의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Zoom'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학기에도 실시간 쌍방향 100% 수업을 할 것인가?

'Zoom'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에 투입했을 2020년 4월에는 전국의 학교에서 5% 정도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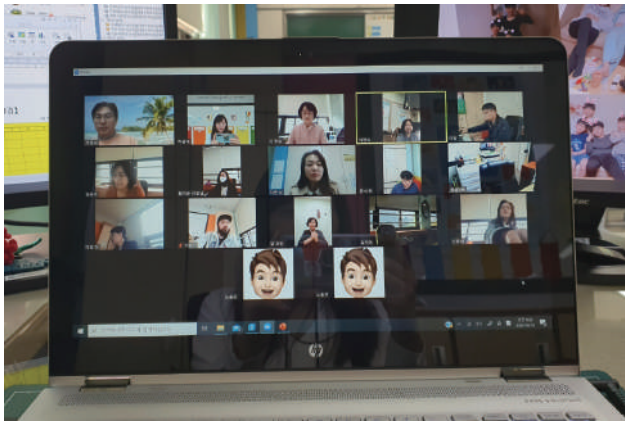
교육부의 7월 조사에도 실시간 쌍방향 방식의 수업은 1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지난 7월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오는 2학기 때 쌍방향 수업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사단체 등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의지대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의 통신망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4월 27~29일 교원 22만 4894명 온라인 설문.
자료=교육부

교과수업 시 주된 원격수업 형태.



줌(Zoom)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 중인 모습.

있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를 3월 말과 4월 초에 구축했다. 또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최소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세팅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인터넷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치(컴퓨터·노트북·스마트태블릿·휴대폰) 등을 준비해야 했고, 학교는 교실에 컴퓨터 1대 외에도 추가로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했다.

'Zoom'을 통한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

'Zoom'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좋은 점과 문제점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 먼저 좋은 점은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상에서 필기할 수 있고, 개인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 수업 내용을 전달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교사가 준비한 PPT나 동영상 등 수업자료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참고로 이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상황을 동시에 살피려면 최소 2대의 모니터가 필요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교사가 회원가입을 한 후에 'Zoom'에서 소회의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교사가 소회의실을 여러 개 만들어 학생들을 각각의 회의실로 보내게 되면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논의하며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둠의 대표를 뽑아서 서로 논의해서 PPT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든 PPT를 이용해 발표도 할 수 있다.

반면 문제점도 있었는데, 첫째는 인터넷의 불안정한 연결이다. 가정이다 보니 인터넷이 끊기는 일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인터넷 사용량 폭주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둘째는 화면상에서 학생들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원활하게 보이고 들리려면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했다. 셋째는 집 안 사정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

보안의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될 것이다. 이에 교사는 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티처몰

현직 선생님과 티처몰이 기획한

요즘 공책 활용법

집,학교 온/오프라인 수업겸용

초등용 / 중등용

오늘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며 성장하는 "**스스로 학습 정리**" 대표 공책!

배움공책 - 매일매일 배움노트 - 제이커스 성장일기

초등용

선생님! 이제 뭐해요?

다했어요 노트

자투리 시간을 더욱 알차게! 이제 뭐 해요?
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때! 짠! 하고 보여주세요!

초등용

독서 완전 정복

책과 놀아요 노트

감상문만 쓰고 끝나는 독서록이 아닌 쉽고
재미있는 구성이라 책읽기의 재미를 찾아주어요!

초등 저학년

1-2학년에게 딱! 받아쓰기 공책!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바르게 써요 노트

급수장이 들어있어 더욱 편리하며
초등 저학년에게 꼭 필요한 바른 글쓰기 노트!

only 티처몰

오직 티처몰에서만! 새로운 수업 공책!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생각을 이미지화 시켜 표현하는
비주얼 씽킹노트!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발표, 평가하며 성장해가는
토론 공책!

비주얼 씽킹노트 - 토론공책

모든 교구가 한 곳에!
티처몰 바로가기

제품 아이디어 및 구입 문의 1544-7783 (내선2) 온라인 쇼핑몰 www.teachermall.kr teachermall

[중등 비대면 체육수업]

대면 시간이 짧은 만큼 더 애틋해진 것 같습니다

글. **공승규** 인왕중학교 선생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없는 수업은 죽은 수업이요,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은 살아 있는 수업입니다." 대학 시절 수업실연 특강에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주 교수님의 말씀이다. 정말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든 아이들과 소통해보려고 한 어느 체육교사의 발버둥을 말해본다.

재미있는 온라인 체육수업을 위한 고민-홈 트레이닝 영상

많은 고민 끝에 모든 강의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온라인으로 체육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첫 온라인 홈 트레이닝 영상에 9세 딸과 5세 아들을 출연시켰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특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둘째 덕분에 '수업 영상이 재미있고 웃기다'는 평이 많았고, 특히 학생들이 방에서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따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일 기뻤다.

"넌 감동이었어"-EBS 온라인 클래스 1학년 체육 게시판 읽어주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등학생 시절에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좋아하는 코너에 사연을 보내고 일주일간 기다린 뒤 마침내 내 사연이 소개될 때의 기쁨을 수업에 녹이고 싶었다. 가수 성시경의 노래 제목을 빌려 "넌 감동이었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 1학년 체육 게시판에 올려준 게시물들을 사연 소개하듯 읽어주었다. 글 내용은 체육수업에 대한 느낌, 운동에 대한 궁금증, 시시콜콜한 이야기 등 매우 다양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정성껏 읽어주고 답변해주었다. 이 시간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열정적으로 응원과 칭찬해주는 온라인게시판 카페지기 등장

아이들과 EBS 온라인게시판에서 글을 주고받고 놀다 보니 꼭 수업 영상을 올리면 빠짐없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는 단골들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매번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해주며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열성적

인 학생이 있었다. 마치 온라인 체육수업 운영진 같아서 글쓴이가 '카페지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1학년 등교가 얼마 남지 않은 날, 카페지기는 등교하는 첫날 정문에서 "제가 카페지기예요!"라고 인사하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은 내 얼굴을 다 알지만 나는 얼굴들을 몰라 정문에서 한참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생님, 제가 카페지기예요!"-1학년 처음 등교하던 날

1학년은 2월 예비 소집일에 학교를 한 번 와보고 6월에 첫 등교를 하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 반 아이들도, 카페지기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정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1학년 아이들이 정문을 지나가면서 나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인사를 나누고 지나갔다. 그러던 와중에 정문에서 어떤 여학생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척척 걸어왔다. 느낌이 왔다. '아…. 설마…?' 하는 순간 "선생님, 제가 카페지기예요!"라고 크게 말하면서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 너무 반가워서 같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었다. 옆에 함께 서 계셨던 교감선생님이 "공 선생, 쟤 방금 뭐라고 한 거야?"라고 물으셨다. 나는 신나게 설명을 했고, 다 들은 교감 선생님께서 흐뭇하게 웃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 좋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마치 90년대에 '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얼굴 모르는 사람과 채팅으로 먼저 친해진 뒤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해하다 마침내 만나본 느낌이었다.

밴드 채팅, 카카오톡 단체방 채팅으로 친해지자 한 학기가 금방

아이들을 3주간 만났을 뿐인데 방학이 찾아왔고 헛웃음이 났다. 그 좋아하는 학급 행사 한번 못해보고, 아이들과 떡볶이 한 번 못 먹어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모두 짧은 시간에 참 가까워져 있었다. 체육수업 게시판을 통한 소통 말고도 늘 우리 반 아이들과는 밴드 채팅, 카카오톡 단체방 채팅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친해진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도 아이들과의 친밀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말부부 같은 느낌이라 만나는 시간이 짧은 만큼 소중해서 서로 더 애틋해진 것 같았다.

"재미있어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1학기 체육 게시판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준 글은 모두 194개. 학생들의 신청곡으로 운동 영상 BGM을 만들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나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1학기 내내 학생들과 함께 1학년 체육수업을 만들어 온 느낌이다. 영상편집을 배워본 적도 없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 그런데 강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라는 말들을 해준다. 체육게시판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놀면서 매일 몇 통의 편지를 받은 느낌이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어떻게든 소통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2학기에도 살아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 Ⓣ

약력 공승규

• 現 인왕중학교 체육교사

[초등 온라인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학생 중심 참여형 블렌디드 러닝으로 준비 완료

글. **이슬기** 안일초등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배움이 일어났던 익숙한 교실 속 모습들이 이제는 낯설다. 비대면-비접촉이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책상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 1회 등교라는 사상 초유의 교육 현장이 펼쳐졌다. 과연 아이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은 이제 불가능한 것일까? 이슬기 선생님의 수업 사례 속에 희망의 빛이 있다. 함께 만나보자.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 중심의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달식 강의형 수업이 아닌 교실에서처럼 아이들과 소통을 하며 수업을 하고 싶었다. 처음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막막하기만 했지만 동 학년 선생님들과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를 재구성하며 점점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맞는 수업이 갖춰져 갔다.

수업은 활동 중심의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자기관리,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처리, 공동체, 심미적 감성)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배움을 즐기며 학부모들에게도 신뢰와 만족을 주는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음을 경험한 한 명의 교사로서의 보람되고 뿌듯했던 수업 일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공유하고자 한다.

약력 이슬기

- 現 안일초등학교 교사(교육과정 연구부장)
- 現 안양과천교육지원청 8대 분야 체험학습 지원단
- 前 초등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위원
- 저서 『수업의 모든 것을 줌』 (공저) 9~10월 출판 예정

1. 20년 뒤 미래의 동창회.
2.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 장면.
3. 집 안 구석구석 노란색 물건 찾기.
4. 나에게 소중한 물건 소개하기(1학년 때부터 기른 개운죽이 천장까지 컸어요!).

'20년 뒤 미래 동창회'가 열린다면, 이색 온라인 진로 수업

"OO는 최연소 유명 영화감독이 되었구나!", "OO는 벌써 애가 3명이야?", "OO인 유럽축구까지 진출하고", "우리 선생님은 좀 늙으셨지만, 아직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하시네요."

장래 희망을 소개하는 평범한 진로 수업이 아니라 20년 뒤의 미래 동창회를 가상 설정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수다가 한창이다. 온라인 수업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며 간단한 소품과 가상 배경(사진)을 준비하게 했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친구는 트로피도 만들어오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아이는 헤드셋을 끼는 등 27명의 학생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면에 모였다.

교사는 실제 동창회 현장인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된다. '낄낄 깔깔' 웃음 속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 소통능력이 신장 되는 온라인 진로 수업이 펼쳐졌다.

집 안 구석구석에서 물건을 찾아 수업에 활용

온라인 수업에서의 큰 장점은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가정으로 연계되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수업 교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자가 들어가는 물건을 찾아오는 간단한 온라인 놀이부터 실과 수업과 연계한 냉장고 속의 음식을 가져와 창작요리 수업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도덕과 인성교육을 연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소개하고 의미를 서로 나누며 공감하는 수업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레고 작품도 보여주고 직접 키운 블루베리 나무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애지중지하는 반려견과 소중한

동생까지 소개하며 교실 수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온라인 수업 속에서 아이들의 배움으로 스며들었다.

온·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린 혼합 러닝 교육

현재 본교에서는 주 1회 등교 수업과 4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할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온·오프라인 수업이 연계되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교실 수업의 장점은 아이들이 직접 실물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생생함, 가정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협동작품 만들기, 비대면 접촉 교실 놀이 등 함께할 수 있는 배움이다.

반면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므로 모둠 활동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업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실시간 쌍방향 ZOOM 프로그램 '소그룹 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둠 활동을 했고, 나아가 가정연계 수업 활용 및 인터넷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교실) 수업의 장점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과를 재구성하여 주간계획을 짜고 수업 속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장 참조형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4학년 사회 교과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서의 학생 참여형 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5. 공공기관 온라인 빙고 놀이.
6. 공공기관 역할과 랜선 견학.

5

6

7

렌디드 러닝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을 학습하고 오프라인(교실) 수업에서는 비접촉 코너 학습을 통해 공공기관 가상 견학 수업을 했다. 학생 각자에게 공공기관의 '장' 역할을 정해주고 공공기관이 하는 일의 자료조사 학습을 평가로 연계하며 교–수–평이 일체화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진행했다.

수학 교과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평면도형의 이동 〈밀기, 뒤집기, 돌리기〉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 후 원리를 익히고 놀이 학습을 통해 적용했다. 오프라인(교실) 수업에서는 수학 교구를 활용하여 협력 테트리스 놀이를 하고, 미술 교과와 통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활용하여 협력 교실 꾸미기를 할 수 있었다. 평가 또한 관찰 평가 및 동료평가로 연계할 수 있었다.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비해야

사실 수업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이 추구하려는 목적은 오프라인(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똑같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유의미한 교육 활동을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 기회를 성장과 발전으로 거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훌륭한 집단 지성이라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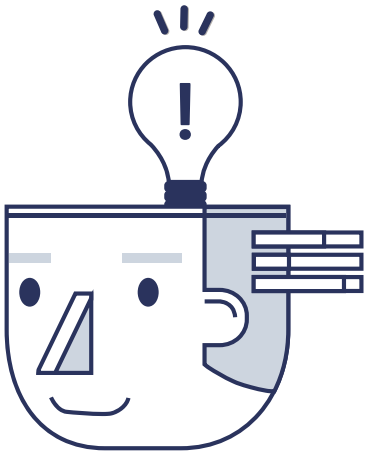
오프라인(교실) 속 수업

7. 공공기관 가상 견학 미션놀이.
8.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한 펜토미노 조각놀이.
9.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한 릴레이 협력 테트리스.

[초등 비주얼씽킹]

그림으로 표현, 생각에 날개를 달다

글. 신건철 구로초등학교 선생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업 방법인 비주얼씽킹은 이미 익숙한 수업 방법이 되었다. 말과 그림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 효과적이어서 많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상 그전처럼 비주얼씽킹 수업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졌다. 그래서 접촉을 줄이면서 원격수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주얼씽킹 수업 방법을 소개한다.

'나의 여름방학' 비주얼씽킹 이야기 만들기(시각언어 연습용)

비주얼씽킹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언어 연습이다. 그림을 수업의 도구로 사용하므로 비주얼씽킹 수업 시간에 활용한 시각언어를 약속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자칫 미술시간의 그림처럼 그리다가 수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학 때 있었던 사건을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면서 시각언어를 배워보면 더욱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수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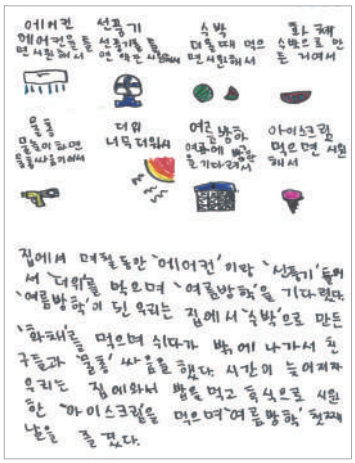
1) '나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8가지 단어(소주제)를 적는다.
2) '나의 여름방학'에서 8가지 단어(소주제)가 왜 생각나는지 그 이유를 적는다.
3) 그 당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한다.
4) 시각언어 카드를 자르고, 각 시각언어를 연결하여 '나의 방학' 이야기를 완성한다.

약력 신건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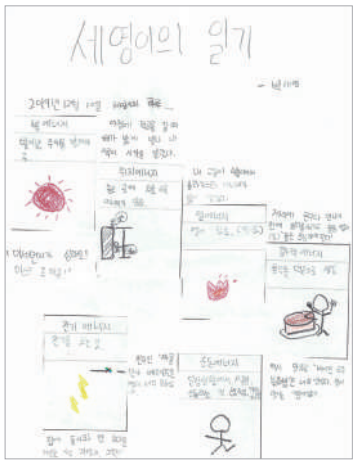
- 現 서울구로초등학교 교사
- 서울시연수원 자격연수 강사
- 티처빌, '비주얼씽킹, 생각에 날개를 달다' 원격연수 강사
- 서울초등비주얼씽킹 교육연구회 운영
- 티처빌,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원격연수 강사
- 저서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참고 영상] 비주얼씽킹
여름방학 계획 세우기

예시



'여름'과 관련된 비주얼씽킹 이야기 만들기



6-과학, 에너지의 종류(에너지 사용일기 만들기)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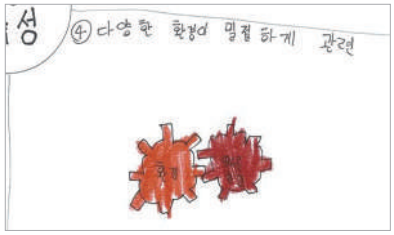
1) 시각언어 예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좋다.

2) 시각언어 카드를 잘라서 A4용지에 붙이면서 이야기를 만들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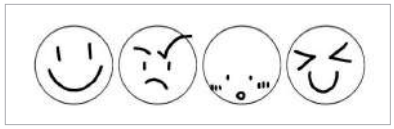
시각언어 예시

시각언어는 생각을 간단하게 그려서 나타내는 도구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그린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사용하는 그림과 다르다.

나·당 연합을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았다고 표현하는 시각언어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톱니바퀴 2개로 표현한 시각언어



감정(서울상천초등학교 고아림 선생님 제공)

원격수업에서 활용하는 비주얼씽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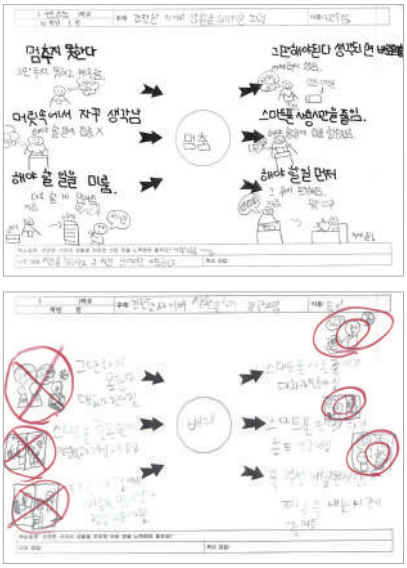
원격수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의 활동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학습 결과물 역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주얼씽킹 수업 역시 콘텐츠 제시형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1) 수업 동영상에 교사가 주제와 소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주제와 소주제를 스스로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주제인 배려와 소주제 예시를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2) 교사의 비주얼씽킹 예시를 보여주면 좋다. 추상적인 수업 내용을 구체물이 그림을 표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교사가 한 가지 정도 예시를 보여주면 학생들도 아이디어를 얻고 격려를 받아 비주얼씽킹을 해볼 수 있다.

예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

등교 수업에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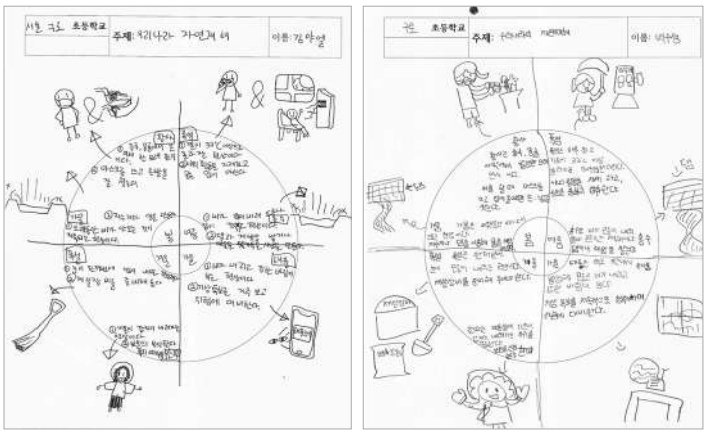
원격 수업과 병행되고 있는 등교 수업에도 역시 비주얼씽킹 수업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예전과 달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피드백해 주는 것은 어렵지만, 실물화상기를 통해 시각언어 예시를 그려본다거나 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의 생각을 대화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그림을 그려야
>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 그림을 넘어
> 생각에 날개를 달 때,
> 비주얼씽킹 수업은
> 더욱 즐거운
> 수업이 될 것이다.

활용 방법

1) 주제(우리나라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험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2) 교과서에 제시된 계절별 자연재해를 확인하고,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학습지에 주제(우리나라의 자연재해)와 소주제(봄·여름·가을·겨울)를 적는다.
3)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원 안에 적는다.(예: 봄 - 황사, 가뭄)
4) 각 내용을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한다.

예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비주얼씽킹 수업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은 교사 자신이 그림을 못 그려 비주얼씽킹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주얼씽킹 수업은 학생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시각화하여 그림을 표현하는 수업이므로, 교사의 그림 실력과 수업 성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너무 잘 그린 교사의 그림은 학생들의 생각할 기회를 빼앗아 버려 '내가 어떻게 해도 선생님보다는 잘 그릴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비주얼씽킹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의 그림을 베끼는 수업이 될 수 있다. 비주얼씽킹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비주얼씽킹 수업에서 그림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수업 시간에 그림만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주얼씽킹 수업의 최종 목표는 그림을 통해 대화하고, 활동하고, 나아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림을 넘어 생각에 날개를 달 때, 비주얼씽킹 수업은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될 것이다. Ⓣ

비주얼씽킹, 생각에
날개를 달다 원격연수

EBS 미래교육 플러스

비대면 메이커수업 해보니 걱정 눈 녹듯 사라져

다양한 매체, 교과와 융합, 공간 부족 해소, 수업의 편리함이 장점

글. 연제현 원주 평원초등학교 선생님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를 경험했고, 여러 차례의 개학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소통했고, 코로나 국면이 다소 잠잠해지자 현재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반기였으나 다행히 대다수 선생님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올해 처음 비대면 메이커 수업에 도전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막상 해보니 재미도 있고 왜 망설였나 싶었다. 이에 나의 경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유해 본다.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번져

처음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결정됐을 때, 내심 설레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온 터라, 등교 수업 날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등교 수업을 해보니 깐깐한 방역수칙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예체능 계열 수업은 절망에 가까웠다. 또한 오랜 기간 등교 수업의 부재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자 등교 수업 날에는 국어·수학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정했고, 등교 수업 날에도 인터넷 강의처럼 칠판 앞에서 설명만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우리 반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미안했다.

걱정스러웠던 비대면 메이커수업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테크빌교육에서 온라인 비대면 메이커 수업을 제안받았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다소 걱정되었다. 우리 반은 온라인 개학 이후 주 1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여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참여율도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쌍방향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도 있었으며,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얼굴이 비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막상 해보니 참여도 높고 호응도 좋아

메이커교육 키트를 등교 수업일에 학생들에게 미리 나눠준 뒤 온라인 비대면 메이커수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화면이 끊기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이 안정화되고 나의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우선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아마도 새로운 수업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 메이커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참여도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높은 참여도는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전문강사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키트를 제작했으며, 수시로 소통하며 어렵거나 막히는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또한 PPT·동영상 등의 매체를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함께 보며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연결이 끊긴 학생도 이날 녹화한 수업 영상을 다시 시청하거나 메이커교육 키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세밀한 소통은 숙제, AR과 결합은 어떨까?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카메라나 마이크, 인터넷 연결 상태 등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얼굴을 마주 보며 소통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소통은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리고 선생님의 화면을 보며 만들다 보니 세밀한 부분을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만약 메이커교육을 AR(증강현실)과 결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등교 수업일에 학생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메이커 수업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수업 방법이 다소 어색했지만 활동 자체가 쉽고 재미있어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비대면 메이커수업'

아직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또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높은 흥미와 관심, 다양한 매체와의 결합, 공간적인 제약이 적은 비대면 수업의 편리함, 다양한 교과와 융합을 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의 이유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활동으로 온라인 비대면 메이커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약력 연제현

- 現 원주 평원초등학교 교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초등컴퓨터교육 전공)
- 2018–2021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Expert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미래학교 프론티어 '창덕여중'에 담긴 공간 이야기

글. 김현정 티처빌사업부 선임

1941년 서울시 중구 정동에 개교한 창덕여중은 80년 가까이 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다. 역사와 전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면 어울릴 법한 학교지만 창덕여중은 지금 '미래학교'의 대표로 불린다. 어떻게 창덕여중이 미래학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는 공간혁신에 답이 있다. 그 당시 공간 변화를 주도했던 창덕여중의 교장선생님이자 지금은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재직 중인 이화성 관장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나 창덕여중에 담긴 공간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창덕여중이 미래학교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덕여중은 2014년 미래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공간혁신과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창덕여중이 미래학교로 지정된 이유가 학교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2030년에는 많은 학교가 저출산 시대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의 공간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간혁신과 교육과정들이 앞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는 학교들에 좋은 사례가 되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만큼 꼭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Q. 바뀐 공간들과 그 공간들이 생기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여학생, 중학생이라는 발달단계를 고려하되 다른 학교에는 없는 공간을 층별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와 함께 미래학교 공간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생각했던 미래학교에서 '배움의 공간'은 책상이 있는 교실도 있지만, 책상이 없는 공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간이 바로 '소극장'·'온돌방'·'홈베이스' 등이었어요. 이러한 공간에서 과목별 융합 수업도 이루어지고, 책상과 의자가 없다 보니 다양한 신체표현도 할 수 있었어요. 댄스동아리 활동, 소규모축제, 발레 수업 같은 것들요. 하지만 결코 뚝딱뚝딱 빠르게 나온 결과물은 아니에요. 이렇게 노후된 공

약력 이화성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관장
-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 前 창덕여중 교장선생님

간에서 미래학교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꼬박 2년 반 이상이 걸렸으니까요.

Q. 창덕여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창덕여중의 공간은 하나부터 열까지 교직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님과 소소한 것 하나도 협의하여 진행했어요. 실패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주인의식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함이었죠. 특히 학생들의 의견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가지 사례로 저희가 학교 서체를 새롭게 정하려고 할 때 3가지 타입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학생들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하나의 서체가 몰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사물함·세면대 등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끼면서 더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더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Q. 공간의 변화로 달라진 부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공간을 만들고 이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주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너무 잘 따라와요. 일례로 이전에는 학교 페인트 벽에 모든 게시물을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붙여놨었어요. 그 과정에서 페인트가 벗겨졌죠. 그 모습이 비교육적이고 환경도 좋지 않아 한쪽 벽면에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주었어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순간 벽이 정리되더라고요. 공간이 바뀌니 말

> 자신의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이 필요 없었어요. 아이들이 게시물을 무질서하게 붙인 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공간을 정해주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고, 공간을 정해주는 순간 내용 또한 풍부해졌어요. 아이들이 외부 포스터나 산출물들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잖아요. 자신의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Q. 수업도 달라졌나요? 환경이 바뀌니 분명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학교 공간구축을 하면서 처음으로 태블릿을 사기도 했고, 학교 전체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환경이 갖춰지니까 모든 선생님이 테블릿을 통한 수업방식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공간이나 장소를 뛰어넘는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사문화도 바뀌었답니다. 초창기부터 학습공동체를 의무화하여 모든 선생님을 일과 시간 중에 참여하게 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등 문화적인 측면 또한 수업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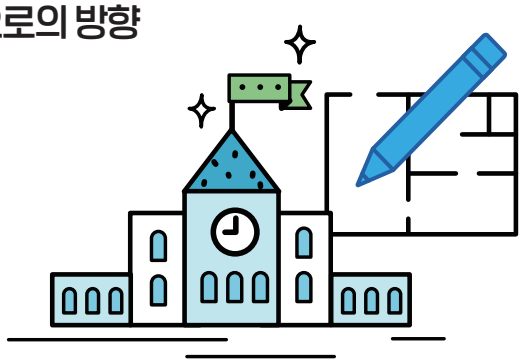
그리고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블록타임제'와 '과정중심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블록타임제를 하면서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수업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교육과정 장치나 테크놀로지, 교사학습공동체 문화, 협의하는 문화 등은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고, 공간은 그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열려 있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수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이 바뀌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죠.

Q. 학교 공간혁신,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현재 학교 공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학교는 '학습하는 곳'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공간 외에는 관심이 도통 없어 보여요. 물론 예전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 같아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공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심을 두고 서로 논의해 보는 것으로도 학교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 공간혁신을 시작하려는 선생님들께 좋은 공간을 많이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염두에 두고 돌아다니면 보이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창덕여중 재직 4년간 제 휴대폰에는 온통 공간과 관련된 사진뿐이었죠. 그렇게 보고 또 보는 것이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

건축사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공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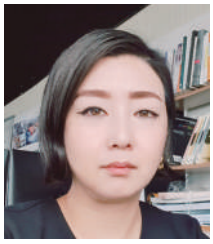
글. 채가을 건축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약되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인식도 바뀌고 있다. 학교 공간도 그런 공간 중 하나다. 몇 해 전부터 변화를 지속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 온라인 개학과 함께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공간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학교 공간혁신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설켜 있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밟아야 하므로 시작 초반부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 장에서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학교 공간을 바라보고, 학교 공간혁신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건축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신축설계 공모 포기… 7년 전과 달라지지 않아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전주의 모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초등학교 신축설계 공모전에 디자이너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동안 유럽에서 경험해왔던 다양한 공간이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적용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팀을 구성해 계획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학교 공간구성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은 채 중도에 포기한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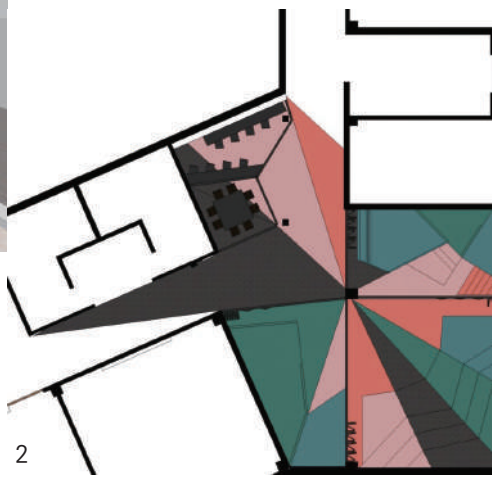
왜 아직도 건축 계획 각론에 입각한 배치도와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실망감, 또한 중복도 혹은 편복도 공간에서 교실 1~2개를 지워내고 색을 입혔다고 해서 새로운 공간구성이라고 거짓 주장을 해야 하는 현실,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한 아이들을 100여 년 전의 공간에 집어넣은 채, 교육이란 걸 실행하고 있다는 슬픔 등으로 이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모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은 7년 전과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 와중에 '꿈담교실'이나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분적으로 공간이 변화되



약력 채가을

- 現 가을건축사사무소 대표
- 現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 現 국립공원공단 심의위원
- 前 단국대학교 및 경기대학교 외래교수
- 서울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국제공모전 2등 수상
- 부산 오페라하우스 국제공모전 입선
- 전주시 야호학교 거점공간 리모델링 설계 공모전 당선 외 다수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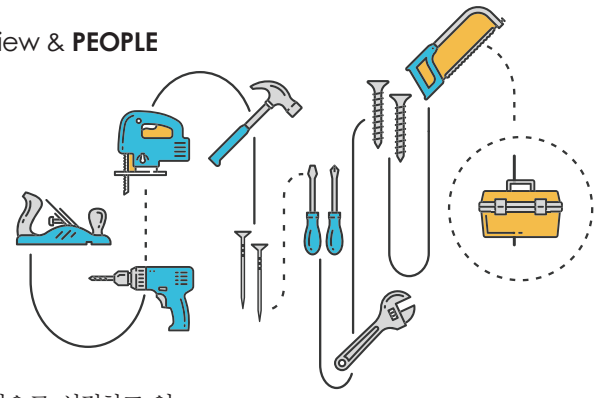
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학교생활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여한 건축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한번 참여했던 건축사들이 두 번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육부 사업이 지속해서 실행되기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시설 분야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획의 부재와 반복되는 시행착오 줄여야 해

시설비는 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투입되는데, 추진되는 전체 기간과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행정 시스템 안에서 시행하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와 뒷받침해줄 만한 정책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행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디자인이 부재한 개보수 사업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제외된 실시설계비용만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설계 기간 또한 부족했다. 이제 설계자의 감리가 아닌 교육청 시설과의 감독관에 의해서 감리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교육전문가와 건축전문가 그 외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검토되고, 추후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이 시행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공간혁신사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며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30~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건물에 시청각실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석면철거, 외단열 시스템 제거, 내진보강 등의 공사들이 차례로 이루어지며, 그야말로 학교건물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학교 단위의 기획이 부족하고, 전체 마스터플랜은 물론 학교별 총괄건축가 없이 다양한 설계자들로 인해 재료와 색상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다 보니 불거진 문제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지 공사장에 가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 안타깝다.

1. 전주덕일초 계획안 투시도.
2. 전주오송중학교 평명계획안.



시공자 선정방식 재검토 필요

현재 대한민국 공공건축물의 시공자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도면과 투시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써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이를 고려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재 스펙 지정 권한 부여해야

또한 설계자가 자재 스펙을 지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 또한 변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을 아직도 최저가 또는 가성비로 접근하는 분위기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의 비용이 투자되었음에도 오히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들이 이어진다. 설계자로서 원하는 자재와 디테일을 구현하는 업체로부터 별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납품했다 하더라도 선정된 시공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공건축물의 현 실태이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설계자가 감리자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설계자의 감리실행 추가

대한민국의 공공건축물 소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에는 감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리모델링은 신축과 달리 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현장 상황이 변하므로 매일 현장소장 및 관련 업체들과 전화통화 및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방문 또한 주 2회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교수 이외 건축사들의 자문 확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육부로부터 보내진 컨설턴트에게 리모델링을 위한 교실 개수와 교실 한 개에 2,000만 원의 시설비를 책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문의하니, 어쩔 수 없으니 주어진 시설비 내에서 진행하라는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했다.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공간혁신 사업 중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30년 동안 교육부의 자문을 맡아온 교수들의 일부는 계속해서 상담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불감해졌기에 실무에서 직접 경험해 본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즐거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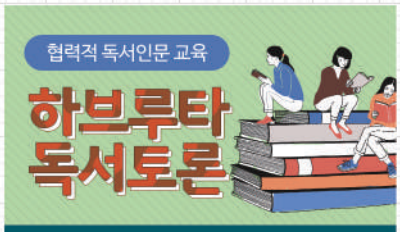
2학기 학생 체험교육 고민이신가요?

다양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맞춤형**으로 만나보세요!
즐거운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인기 교육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학생 자치회 리더십캠프



하브루타 독서토론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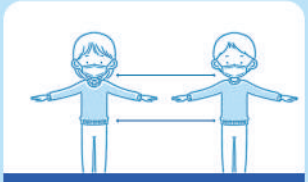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대비

즐거운학교의 체험교육은 **코로나 19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생개별체험

마스크 상시 착용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교육문의 즐거운학교 070-8282-0140 www njoyschool.net

[기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에듀테크'… 오늘, 그리고 내일은?

글. 서명훈 뉴스1 산업2부장

교육 업계에 에듀테크 열풍이 거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를 머뭇거리던 교육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에듀테크가 말 그대로 대세가 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언택트) 교육 확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황이어서 에듀테크 전성기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말한다. 특히 교원·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뤼이드, 그리고 테크빌교육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들은 에듀테크를 단순히 선언적 구호로 외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사활(死活)을 걸 정도로 막대한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비(R&D)를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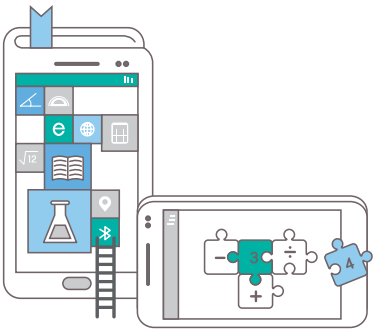
'빅4' 에듀테크 투자, 뜯어보면 다르다

에듀테크에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회사는 웅진씽크빅이다. 웅진씽크빅은 올해만 334억 원을 에듀테크 관련 부분에 투자할 예정이다. 웅진씽크빅에 이어 △교원(교육사업부문)(최소 238억 원 이상) △아이스크림에듀(101억 원) △뤼이드(매년 약 50억 원 이상) 등의 순이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웅진씽크빅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스마트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교육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건수는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스타트업 뤼이드가 기존 대형 교육업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대규모로 R&D 비용을 투자한 웅진씽크빅이 1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아이스크림에듀(4건) △교원(3건)이 뒤를 이었다.

뤼이드는 그동안 토익 수험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맞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완할 수 있는 에듀테크에 집중했다.

뤼이드 관계자는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뤼이드랩스'에 R&D센터를 두고 세계 최고의 AI 기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토익·공인중개사 등) 특정 시험을 넘어 학습자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목표 성취를 돕는 '포머티브 러닝(Formative learning) AI 튜터 솔루션'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회원 수와 R&D 인력은 교육 업계 매출 1위 교원이 차지했다. 교원은 총 230여 명의 R&D 인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회원 수는 52만 명(활동회원 기준)을 기록했다. 에듀테크 회원 수는 △교원(52만 명) △웅진씽크빅(46만 명) △아이스크림에듀(10.2만 명) 순이었다. 뤼이드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활동 회원 수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누적 회원 수(220만 명) 개념으로만 통계를 갖고 있다.

R&D 인력은 △교원(230여 명) △아이스크림에듀(191명) △웅진씽크빅(150여 명) △뤼이드(50명) 순이었다. 전체 인력 대비 R&D 인력 비중은 △뤼이드(50%) △아이스크림에듀(40%) △웅진씽크빅(33%) 순으로 신생 회사들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R&D 인력 비중이 높았다. 교원은 인력을 교육사업부분으로만 추릴 수 없는 구조여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아이스크림에듀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주요 에듀테크 기업 중 △지능정보기술연구소 △홈런기반개발실 △신성장위원회 등 에듀테크 업계에서 가장 많은 R&D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테크빌교육'도 "에듀테크 투자·인력 강화할 것"

교원 연수 사업 분야의 1위 테크빌교육은 에듀테크 4강(强) 기업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에듀테크 분야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다. 테크빌교육은 현재 에듀테크 관련 특허(등록 건수 기준)를 10건 보유하고 있다. 웅진씽크빅·뤼이드와 함께 두 자릿수 특허를 보유한 셈이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 약 20만 명이 테크빌교육의 에듀테크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주요 4강 기업과 맞먹는 에듀테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R&D 인력과 투자비용은 '빅4'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테크빌교육은 올해 R&D에 약 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인력 10명 중 3명(33명)이 '에듀테크 연구소'에서 에듀테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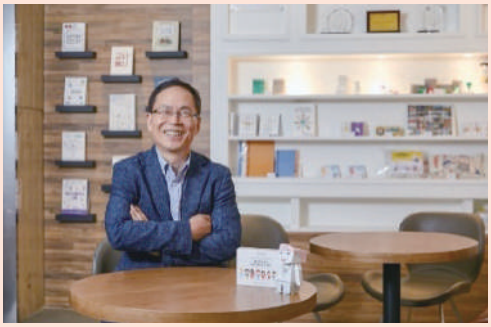
앞으로 에듀테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테크빌교육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기업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제품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특화된 기술 특허 확보 등은 기술 경쟁 시대에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기본이자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테크빌교육은 연구개발 인력 충원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교육업계의 에듀테크에 대한 확신은 부러운 부분이다. 2~3년 후 에듀테크를 앞세운 'K-교육'이 K-방역처럼 전 세계 '표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약력 서명훈

- 現 뉴스1 산업2부장
- 前 뉴스1 재계팀장
- 前 머니투데이 뉴욕특파원

전자신문 (2020. 06. 29)

[CEO 인터뷰]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 “미래교육 핵심은 교사”



(기사 중략) 이 대표는 29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뀐 상황에 맞춰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교사가 만든 교육 콘텐츠가 널리 보급될 때 교사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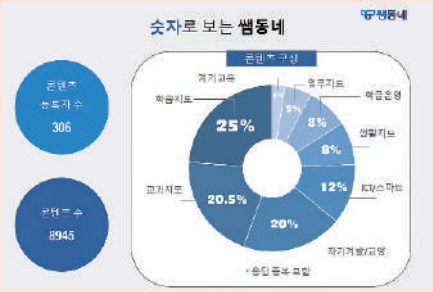
교사가 공들여 만든 영상 콘텐츠 또한 하나의 저작권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발한 창의 교육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수업에서 교사는 많이 아는 것보다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실제로 온라인 개학에서 교사별 정보기술(IT) 숙련도에 따라 수업의 질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 대표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은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원격수업 전달법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사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체계를 갖춘 지속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하 생략)

전지연 기자

에듀인뉴스 (2020. 09. 01)

교사 생성 콘텐츠 8945개… 티처빌 ‘쌤동네’,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 리뉴얼 오픈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교사가 생성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쌤동네’를 1일부터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리뉴얼 오픈한다. 그동안 쌤동네는 교사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서 9000여 개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 간 고민과 수업 노하우를 나누는 장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사들로부터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새롭게 기획, 생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콘텐츠로서의 인정은 부족해 아쉽다는 고충을 듣고 쌤동네를 ‘유·무료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리뉴얼 출시하기로 한 것. 쌤동네는 교사가 생성한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더욱 양산하고 저작권이 확보된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교사의 원격수업 고민을 덜고 수업의 질 또한 높여 교사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하 생략)

지성배 기자

뉴스 1 (2020. 09. 11)

티처몰, 네오랩 컨버전스와 맞손… '스마트클래스키트' 독점 판매

테크빌교육은 네오랩 컨버전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클래스키트를 학교에 독점 판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테크빌교육의 교육전문 쇼핑몰 '티처몰'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펜을 활용해 모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클래스키트'를 학교 시장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네오펜 스마트클래스키트를 이용하면, 교사들이 영상 수업에서 교사 판서를 학교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클래스키트는 녹화버튼 하나로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 촬영 전용 스튜디오나 교사가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해 편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하 생략)

조현기 기자

에듀동아 (2020. 9. 16)

티처몰, 모닝글로리와 공교육 시장 '당일배송 시스템' MOU 체결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교육전문 쇼핑몰 '티처몰'이 종합디자인 문구기업 '모닝글로리'(대표 허상일)와 지난 9일 공교육 시장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티처몰은 선생님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한 교구들을 학교로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모닝글로리는 티처몰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권을 가지게 됐다. (기사 중략)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티처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모닝글로리의 전국 유통망에서 티처몰 교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양사는 올해부터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범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중에 제품을 구매한 교사에 한해 당일 배송 시스템을 먼저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초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 생략)

김수진 기자

2020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7기	3학점	09월 02일	10월 06일		10월 07일
	3학점	09월 16일	10월 20일		10월 21일
	2학점	09월 02일	09월 22일		09월 23일
	2학점	09월 16일	10월 13일		10월 14일
	1학점	09월 02일	09월 15일		09월 16일
	1학점	09월 16일	10월 06일		10월 07일
8기	**4학점**	**09월 23일**	**11월 17일**	**11월 14일**	**11월 20일**
	3학점	10월 07일	11월 03일		11월 04일
	3학점	10월 21일	11월 17일		11월 18일
	2학점	10월 07일	10월 27일		10월 28일
	2학점	10월 21일	11월 10일		11월 11일
	1학점	10월 07일	10월 20일		10월 21일
	1학점	10월 21일	11월 03일		11월 04일
9기	**4학점**	**11월 11일**	**12월 15일**	**12월 12일**	**12월 18일**
	3학점	11월 04일	12월 01일		12월 02일
	3학점	11월 18일	12월 15일		12월 16일
	2학점	11월 04일	11월 24일		11월 25일
	3학점	11월 18일	12월 08일		12월 09일
	2학점	11월 25일	12월 15일		12월 16일
	1학점	11월 04일	11월 17일		11월 18일
	1학점	11월 18일	12월 01일		12월 02일
	1학점	11월 25일	12월 08일		12월 09일
특별기수	3학점	12월 02일	12월 22일		12월 23일
	2학점	12월 09일	12월 22일		12월 23일
	1학점	12월 09일	12월 22일		12월 23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달 전부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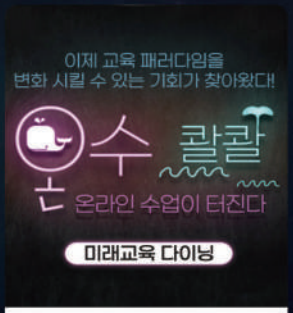
티처빌연수원

THE ONLIN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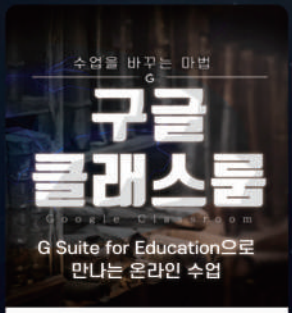
TEACHER WARS

MS팀즈부터 구글클래스룸까지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모든것!

티처빌에서 온라인수업이 터·진·다!



1 학점 온수 콸콸! **온라인 수업이 터진다**



1 학점 수업을 바꾸는 마법, **구글 클래스룸**

자율 뉴노멀 시대의 교육혁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1 학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파워포인트 필수 키트**

1 학점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브 브런치**

1 학점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반, 유튜브 채널이 되다**

온라인 수업도! 등교수업도! 수업을 플레이 하자! 전~후기가 증명하는 샘플

2학기 do 쌤플 하세요

SSAM PLAY

등교개학을 해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좋은 컨텐츠!

코로나19사태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티처빌! 고마워요. 쌤플!

강** 선생님
소림학교

영상 사용 팁이나 추천 학습 구간 제공은 정말 감동!

온라인 수업 뿐 아니라 수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부분을 불편하고 힘들게 느꼈었는지 잘 살피고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 선생님
영강초등학교

유튜브 영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가져가면 방해 영상이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서 백점만점!

영상을 올려도 안나온다, ppt가 안열린다, 한글이 안된다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검증된 동영상으로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선생님
선함초등학교

교육문의 www.teacherville.co.kr | 1544-7783(1번)

교사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빅 픽처

한국판 Teachers Pay Teachers 〈쌤동네〉 9월 리뉴얼 오픈!

글. 테크빌교육㈜ 홍보팀

'Unlock the collective wisdom of teachers.'
위 문구는 교사들의 지혜를 유·무상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플랫폼, Teachers Pay Teachers가 지향하는 바다.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낸다'는 그들의 비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참 이 글귀에 눈길이 멈췄다. 미국이 창의적인 나라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이유도 있겠지만 'Teachers Pay Teachers'처럼 지성을 꽃 피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만큼 저작권 보호에 민감한 사회적 인식 덕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지금까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를 중요시한 만큼 교사라는 직업 사명감 속에 많은 것을 제한했다. 교사가 수업을 위해 고안하고 만든 각종 커리큘럼·수업자료·교구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바라본 것이 대표적 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미덕이지만, 교사라는 이유로 그것을 강요하면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얻을 수 있는 학습 수혜도 그만큼 적어진다.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선생님도 유튜브의 여느 크리에이터처럼 바라보아야 할 때다.

'쌤동네'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동안 '쌤동네'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공유와 소통'의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왔다. 수업 준비부터 학급경영까지 10,000여 개의 콘텐츠가 공유되었고,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들이 서로 고민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다만 '공유'가 주된 목적이었기에 '저작권 인정과 보호'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원격교육이 일상화되었고, 온라인 수업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수업 모델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성하는 교사를 크리에이터로 인식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더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쌤동네〉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선생님들의 지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존으로부터의 탈피다.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재탄생

앞으로 '쌤동네'는 교사가 자신의 자료에 가치를 매길 수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교과, 학습, 생활지도부터 학급운영과 ICT/스마트수업, 계기교육, 자기계발 및 교양까지 디지털 콘텐츠라면 어떤 것이든 다운로드형 또는 스트리밍형으로 업로드 가능하다. 가격 및 할인 정책도 생산자인 교사가 결정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 제작의 전문가인 선생님이 만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쌤동네'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해 홍보를 비롯하여 교원 연수 또는 교구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한다. 교사가 수업 또는 수업 외적으로 생산하고 싶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교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걱정 없이 양질의 수업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가 자주 토로한 고충 중 하나가 저작권이 확보된 양질의 콘텐츠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격수업을 시도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거나 검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작 학급운영이나 수업에 집중할 시간은 부족했는데, 이제 새로워진 쌤동네를 통해 저작권이 해결된 양질의 콘텐츠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선생님들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 선한 영향력이 교실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쌤동네'의 러닝콘텐츠

선생님만을 위한 독점 러닝 콘텐츠까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양질의 수업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교사가 만드는 △자율 연수 제작기 △연구대회 시작하는 방법 △교사 작가 시작하기! A to Z 등 선생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러닝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교원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게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교원 독점 시그니처 콘텐츠를 오픈한다. 일반 연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특별한 내용이 될 것이다.

오직 선생님만을 생각합니다

이제 막 새 단장을 마친 '쌤동네'는 선생님을 생각하는 티처빌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수업이 더 편리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잠재된 지성에 불을 지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삶이 행복해질까?' 그 모든 고민이 담겨 탄생한 것이 바로 달라진 '쌤동네'다. 티처빌의 진심이 선생님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

·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

뇌과학으로 학교를 다시 보다!

2학점

정재승의 스쿨 브레인

정 재 승

강의 개요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다. 가끔, 아니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 탓이야'라며 자책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보다 안타까운 것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닌 '뇌 탓'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한 방법도 모두 뇌에 있다. 이 모든 원인인 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이 티처빌에 찾아왔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 심지어 정재승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제 학생을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강의 특징

- 학생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
- 창의성, 성취동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메타인지의 개념과 향상 방법 제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팀즈에서
한번에 즐기는 원격 수업

자율연수

뉴노멀 시대의 교육 혁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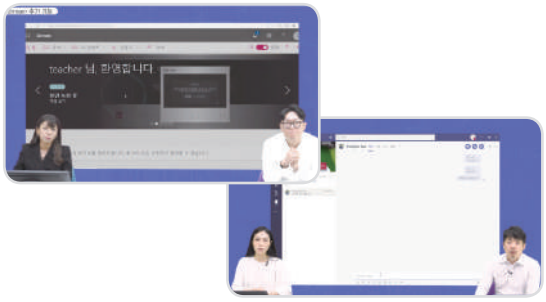
홍 대 화　김 현 정　김 아 미　이 정 서

강의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에도 피하기 어려운 온라인 원격 수업!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팀즈(Teams)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갖고 있다. 화상 수업과 실시간 채팅부터 과제 제출과 채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팀즈의 최대 장점이다. 팀즈 하나만 익히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해당 강의는 온라인 원격 수업의 바다를 헤매는 선생님께 길잡이가 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입문 강의"다.

강의 특징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특징과 장점을 알 수 있는 강의
-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사(MIEE) 4인이 추천하는 MS 팀즈 활용법
- 실제 수업 활용법으로 팀즈의 수업 적용 사례 전달



G Suite For Education으로 만나는 온라인 수업

1학점

수업을 바꾸는 마법, 구글 클래스룸

신 민 철　　박 정 철　　이 제 창

강의 개요

요즘 가장 핫(Hot)한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도구 중 하나인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입문의 난이도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만다. 구글 클래스룸, 구글 오피스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도구를 모아둔 G Suite For Education은 클라우드 기반의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뿐만 아니라 과정중심평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G Suite For Education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 설명부터 시작해 실제 수업 장면을 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과 운영 관리까지! 선생님들을 구글 도구를 활용한 수업 전문가로 바꿔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특징

- 구글 도구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연수
-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와 교사 이노베이터가 함께 풀어가는 깊이와 재미가 함께 담긴 강의
- 실제 수업 장면 속에서 적용된 구글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민주주의

1학점

미래교육의 첫 걸음, 학교자치

임 재 일　　김 요 섭　　서 지 연

강의 개요

상급기관의 지침과 명령에 의존하는 학교, 이대로 우리의 학교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역동성이 사라진 교직원 회의, 관료주의적 업무 시스템, 우선순위가 뒤바뀐 교사의 일상 등 교사의 자존감 하락과 소진 문제의 극복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교육혁신에 성공적인 선진국들이 교육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 분권화를 시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자치와 분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치와 분권의 종착점이 교육청이 아닌 학교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교육의 변화에 발맞추어 걷는 학교자치! 학교 안, 우리의 올바른 첫걸음만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강의 특징

- 학교자치의 전체적인 개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수
- 다양한 학교자치의 사례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극복을 담은 살아 있는 강의
- 학교자치의 오해를 함께 풀어나가며 미래교육에 걸맞은 방향성 제시

작은 펜 속에 우주가 숨어 있었다

디지털 세상 속 손글씨가 전하는 진심과 아날로그 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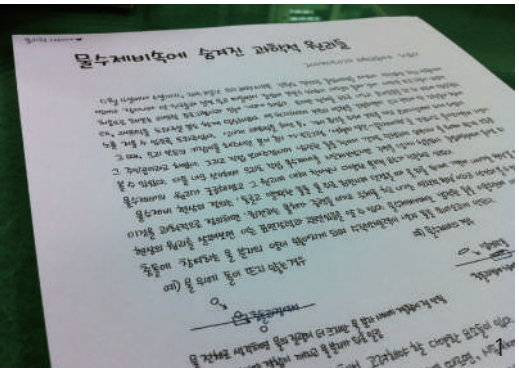
글. 차유미 서울 개운초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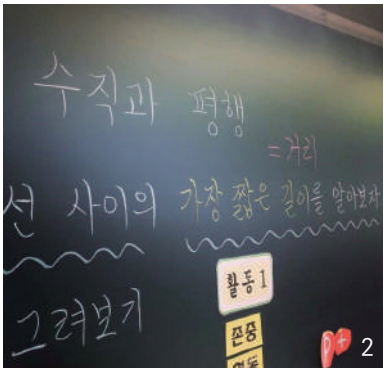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펜은 '모바일'이나 '키보드'라 할 수 있다. 굳이 손으로 적지 않아도 터치(타자)를 통해 내가 원하는 폰트로 생각과 감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런히 정렬된 텍스트가 보기 좋을진 몰라도 손글씨가 주는 정성과 감동에 비할 순 없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 속에 손글씨는 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런 찰나, 손글씨를 좋아하여 학생들과도 손글씨 연습에 푹 빠져있다는 선생님이 있어 티처빌이 그 이야기를 만나보았다.

노트 필기를 좋아했던 소녀, 그리고 펜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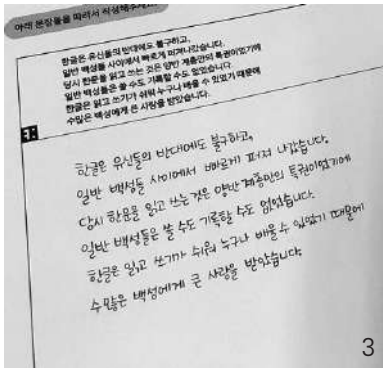
어릴 적에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글씨 쓰기를 참 좋아했다. 그때 한참 삼공 펀치 다이어리 꾸미기와 《미스터케이》 잡지의 콩순이, 코딱지 캐릭터 편지지를 이용해서 손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취미가 한참 유행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부모님께서 차분하게 집중력을 키워보라며 방과 후 서예 수업에 등록해 주었다. 방과 후 수업시간에 글씨를 쓴 기억보다 고구마를 구워 먹고 언니들과 놀던 기억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의외로 적성에 맞았던 덕에 2년간 꾸준히 서예를 배웠다.

훗날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본인의 대학교 재학 시절(자퇴 후 청강을 듣던 시기), 서체 수업을 통해 아름다운 글자체 디자인에 관심을 가





2



3

1. 자필과제.
2.판서.
3. 동글동글체.

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도 대구 감삼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손글씨의 기본이 되는 한글 자형의 다양한 모양과 조화에 대해 익히게 되었다. 비록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글로벌 인재에 나를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서체 수업 부럽지 않은 초등 방과 후 서예 수업이었다.

작은 펜 속에 우주가 담겨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학업을 핑계로 본격적으로 각종 펜을 섭렵해 보기도 했다. '세상에, 작은 펜 속에 이런 우주가 숨어 있었다니'. 부드러운 느낌의 A펜으로 쓰면 이런 글씨가 나오고 잉크가 나오는 원리인 까끌한 B펜으로 쓰면 저런 글씨가 나오다니. 어떤 펜과 어떤 종이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노트 정리가 가능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했던 조합은 살짝 갱지 느낌 나는 모의고사 종이에 0.5mm 굵기로 깔끔하게 잉크가 나오던 하이테크로 글씨를 쓸 때였다.

학창시절, 나를 '인싸'로 만들어준 손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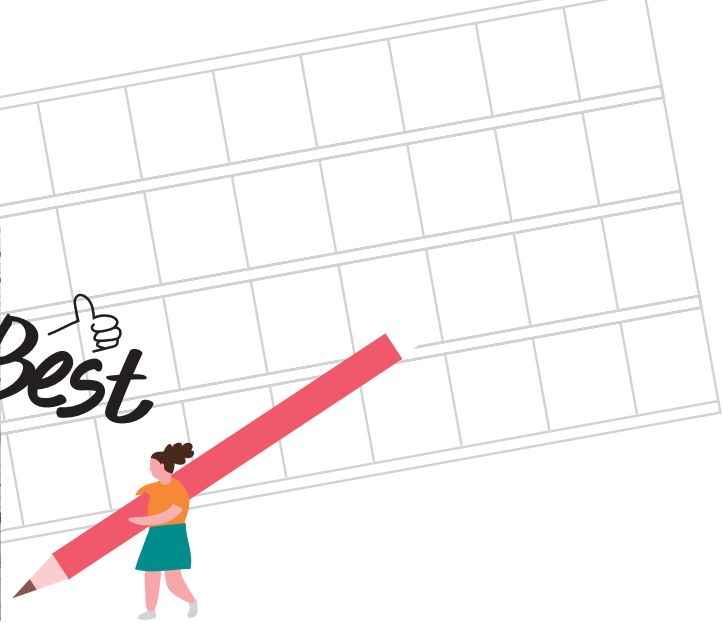
친구들로부터 손글씨가 예쁘다는 칭찬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새 학기 시기에는 매번 사인회가 열린 것처럼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기도 했다. 과목별로 교과서 외에 보충교재로 문제집을 사용했고, 학기 초에 반 친구들이 사 온 문제집 몇십 권을 책상 위에 한가득 쌓아놓고 매직으로 이름을 써주는 작업을 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과 친구가 보고 있는 노트 복사본의 글씨체가 익숙하다 싶어 살펴보니, 내 글씨체인 경우가 가끔 있었다.

판서로 확장된 손글씨의 세계

교단에 들어오고 나니 새로운 필기 장소가 생겼다. 종이에 사각사각 적던 것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손글씨인 판서였다. 주로 이용하

약력 차유미

- 現 서울 개운초등학교 교사
- 前 ㈜아이먼트 교육기획팀 매니저
- 교사 교육콘텐츠 공동체 '몽당분필' 4기
- 교육웹진 '에듀콜라' 필진



던 펜인 0.5mm, 0.3mm와 다른 20mm의 분필로 종이 대신 칠판에 쓰는 과정이었다. 손글씨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 당연히 판서도 잘 쓰고 싶었고 열심히 연습했다. 나중에는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을 컴퓨터 화면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손글씨로 판서하는 것을 더 좋아해 주었다. 노트 필기를 통해 연습했던 손글씨는 이제 그 무대장을 칠판으로 바꾸었다.

차차체, 차쌤체 그리고 유미쌤체까지

판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손글씨를 사용했다. 동글동글한 글씨체는 성을 따서 일명 '차차체'로 불렀고, 조금 더 각 잡고 쓴 진중한 느낌의 글씨체는 '차쌤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글동글 차차체는 예전 교보문고에서 진행한 손글씨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상금도 받고 광화문에서 전시가 되었다. 학생들과 지인들이 종종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차차체 폰트는 언제 나오냐며 묻기도 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최근 폰트로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겼다. 이번엔 각 잡고 쓴 '차쌤체'가 국민 보물찾기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어 서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쌤체는 아마도, '유미쌤체'로 이름이 정해져서 10월 이후 공유마당에서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은 숫자 6인가 0인가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설마, 자기가 쓴 건데 어떻게 자기가 못 알아볼까 싶었는데, 정말로 있었다. 6학년 교실에서 수학 수행평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숫자 6인지 0인지, 6인지 8인지, 혹은 숫자인지 고민의 흔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쉬는 시간에 해당 숫자를 쓴 친구를 살짝 불러 무슨 글자를 쓴 것인지 물어보았다. 분명 본인이 쓴 글씨인데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에, '경필쓰기'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행했다. 손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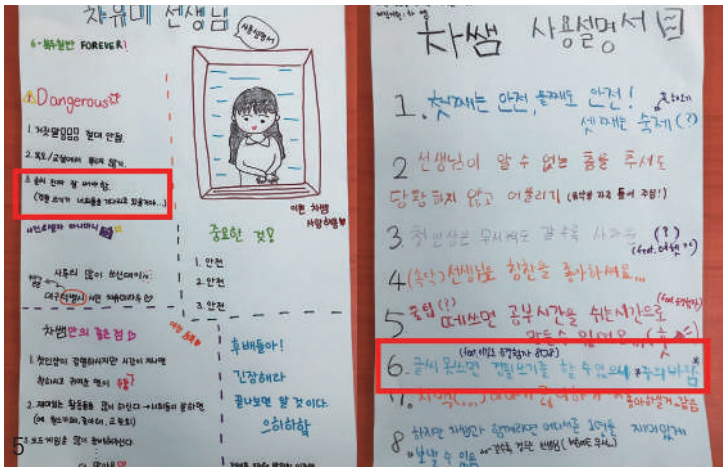
4. 공모전 입상 글씨체.
5. 학생들이 전하는 경필쓰기 후기.

> 손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고 자신의 개성이 담긴 손글씨를 갖기 위함이었다.

라 가독성을 높이고 자신의 개성이 담긴 손글씨를 갖기 위함이었다. 손글씨 수업에 참가한 친구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노트 필기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며 반듯하고 예쁜 손글씨를 갖고 싶어하는 자발적 참가파이고, 다른 한쪽은 수행평가 과제를 확인하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에 반강제로 수업에 참여시킨 일명 발가락 글씨파다. 자발적 참가파는 예전의 나를 보는 것처럼 취미 생활의 일부로 손글씨 수업에 참가했다. 하지만 반강제 참가파는 처음에는 분명 운동장 대신 종이 위에서 글씨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자유분방함이 있었지만, 학기 말에는 눈에 띄게 가독성이 높아졌다. 매년 한 해를 정리하며 학급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아이는 '경필쓰기' 활동은 '괴롭지만 ㅎㅎㅎ(이 웃음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나면 분명 뿌듯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후기를 남겼다.

손글씨만이 가진 진심과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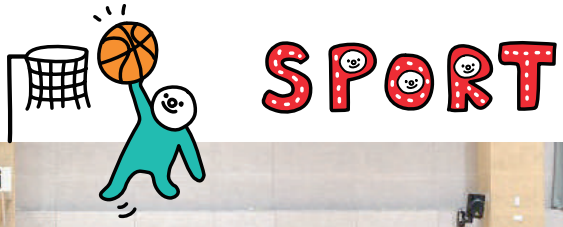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손글씨 수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순간순간 의문이 든다. 당장이라도 스마트 패드와 타이핑이 교실의 노트와 펜과 연필을 모두 다 대체해 버릴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손글씨를 써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의 정리가 일어나고, 손글씨로 적은 글을 전하는 과정에서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다고 믿는다. 우리 반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는 자필 서명도 멋진 손글씨로 했으면 좋겠다. 예쁜 손글씨보다 진심이 담긴 손글씨를 써 내려가며 디지털 세상 속에 잊고 있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무엇인지 느껴보길 바란다. Ⓣ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교사들의 진짜 농구, 경기도교육청 농구동호회 ATP

글. **이량** 호계중학교 선생님



농구, 좋아하세요? 올해 초 방영된 SBS의 리얼 농구 예능 프로그램, 〈진짜 농구, 핸섬타이거즈〉에서 첫 등장부터 이목을 사로잡은 경기도교육청 농구동호회 ATP! 쫄깃한 승부로 핸섬타이거즈를 달군 ATP와 88번 선수로 맹공을 펼친 이량 선생님의 농구 라이프를 소개한다.

농구 인생의 시작점

처음 농구공을 잡게 된 건 초등학생 때다. 집 뒤편 공원에 농구 골대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혼자 나가서 슛을 던지며 놀곤 했다. 농구공이 림(rim)에 깔끔하게 들어갈 때, 그 쾌감을 처음 느낀 것 같다. 이 느낌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20년째 그 느낌을 즐기는 중이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농구에 더 미쳐 있

호계중학교 농구부 단체사진.

었던 것 같다. 학창시절, 점심시간에는 항상 5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에 나가 친구들과 농구를 즐겼다. 정말 순수하게 농구로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진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농구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육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농구를 사랑하던 중학생, 중학교 농구부 감독이 되다!

안양 호계중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농구부 감독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농구 선수 출신 코치가 있고, 나는 행정지원을 하지만 농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다. 예전보다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많이 보장되지만, 더욱더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농구부 학생들에게 농구도 중요하지만, 공부와 학교생활 역시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한다. 학생들이 농구만 잘하는 선수가 되기보다는 농구도 잘하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농구동호회 ATP

ATP는 2003년 체육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만난 이영종(현 신안중 교감) 외 6명이 시작한 농구동호회다. 현재까지 18년째 후배 체육교사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TP의 본뜻은 Adenosine Triphos-Phate로 인체의 에너지 생성과정과 관련된 운동 생리학적 전문용어다. 이 용어를 인용하여 Air Teacher's Peak이라는 의미로 팀 이름을 만들었다. 단어 그대로 '하늘을 나는 선생님들의 최고의 순간 혹은 정점'을 뜻한다.

매주 월요일 산본고등학교에서 20~30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농구를 즐기

약력 이량

• 現 호계중학교 체육교사

고, 경기 후에는 교사로서 멘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ATP는 경기도 중등 체육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소속되어 함께 농구를 즐기고 있다. 농구를 좋아하고 ATP와 함께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란다. ATP는 각종 직장인농구 리그에 활발히 참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ATP 수상내용

- 2010 웅진스포츠배 국민생활체육농구대회 우승
- 제6회 수원시생활체육회장기농구대회 우승
- 2010 점프볼 직장인리그 2차대회 우승
- 제23회 YMCA 전국 직장인 농구대회 우승
- 제27회 청주대학교배 생활체육농구대회 우승
- 2015 THE K 직장인농구리그 2차 대회 우승
- 제25회 루키챌린지 농구대회 우승
- 제1회 분당 직장인농구대회 우승
- 제29회 YMCA 전국 직장인 농구대회 우승
- 2018 THE K 직장인농구리그 1차 대회 우승
- 제31회 YMCA 전국 직장인 농구대회 우승

조금 이상한(?) 농구동호회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에도 농구 동아리를 경험했고, 지금도 ATP 외에 다른 농구동호회에서 농구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ATP는 그동안 겪은 농구팀들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 보통 농구팀은 대회에 나가면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 위주로 출전하게 되고, 나머지는 많이 소외된다.

ATP는 모든 인원이 출전 시간을 동등하게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골고루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ATP의 철학에 따라 항상 대회에 나가면 모든 인원이 경기를 경험할 수 있다. 신기한 점은 이렇게 하면서도 승리하고, 전원이 득점하는 경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모든 인원이 골고루 참여하고, 전원 득점을 하여 이긴 경기라면 승리의 기쁨은 배가 된다. 항상 '최고의 티칭은 격려다'

2

3

라고 하는 동아리 회장 이태성 선생님 말씀대로 팀원들끼리 격려하며 응원하는 게 승리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연습이나 경기가 끝나면 시원한 맥주 대신 항상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떤다. 주제는 다양하다. 수업과 학교 이야기, 결혼과 연애, 육아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심오한 얘기부터 소소한 얘기까지 수다를 떨다 보면 일주일의 피로가 싹 사라진다. 농구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열댓 명이 카페에 앉아 있는 게 가끔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정모를 마무리한다.

'진짜 농구, 핸섬타이거즈'를 달군 ATP

지난해 겨울 방학을 앞두고 SBS에서 연락이 왔다. 농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출연하겠냐는 제안이었다. 팀원들 모두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농구 부흥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정했다. 대진표가 나오고 운 좋게 핸섬타이거즈팀의 첫 경기 상대가 우리 팀이었다. 경기장에 들어가니 수많은 카메라와 스태프들, TV에서만 보던 잘생긴 연예인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여러 수비 전술과 공격 전술을 연습하고 출전했음에도 농구로 방송 출연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에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었다.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핸섬타이거즈팀이 너무 잘했고, 차은우와 레드벨벳 조이 등 연예인 팬들의 엄청난 응원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경기는 끝까지 박진감 넘치게 이어졌다. 시간이 1분 남았을 때까지 경기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 3점 차로 뒤지고 있던 순간, 서경원 선생님의 손끝에서 떠난 공이 림을 통과했지만 이미 버저가 울린 뒤였다. 우리는 핸섬타이거즈에게 감동적인 첫 승을 안겨주었다. 패배가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팀의 철학대로 모든 선수를 고루 기용했고, 엔트리 12명의 선수가 전원 득점을 이루었다. 우리 팀만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아마도 이런 마음은 ATP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

1, 2. 2018 The K 직장인 농구리그 1차 대회 우승.
3. ATP 마라톤.

낯설지만 익숙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토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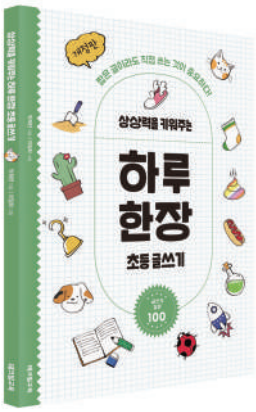
소환된 미래교육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를 바라보다

저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출판사. 테크빌교육

코로나19 사태로 교육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네 차례의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고, 교사와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학교가 단시간 내에 바뀌면서 교실의 변화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학교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었고, 먼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임도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학교 내 구성원의 갈등, 교육 불평등 심화, 현장을 중심에 놓지 않는 행정 체계 등 누적된 교육계의 약점 또한 고스란히 노출되거나 더욱 악화됐다.

이 책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이 지식에서 역량으로 달라졌듯이,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학교의 교수·학습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코로나19가 소환한 미래교육으로 인해 교육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담으면서도 온라인학습 시대에 어울리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평가 등 현재 교육 주체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살펴본다.



짧은 글이라도 직접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판] 상상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저자. 박재찬
그림. 이임하
출판사. 테크빌교육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우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책. 이 책을 따라 매일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글쓰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된다. 창의력·상상력·논리력과 함께 매일 작은 성취를 맛보며 자아존중감도 크게 높아진다.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스스로 해내는 힘이 커진다. 집에서, 학교에서 아이의 학습과 행동에 자신감도 붙는다.

박재찬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루 20분씩 꾸준히 글을 쓰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개정판 상상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장 초등 글쓰기』. 특히 초등 4·5·6학년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이 책과 함께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글쓰기 시간을 가져보시길!

역사 수업이 두려운 선생님을 위한 긴급 처방 119

한국사 놀이 수업 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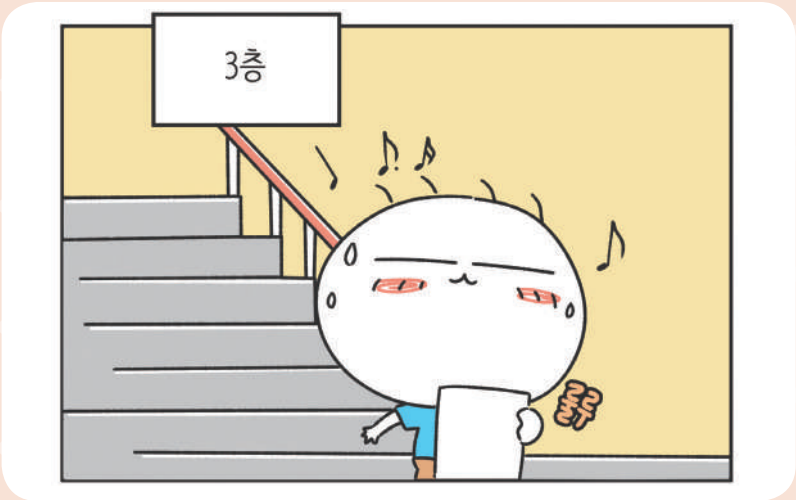
저자. 신봉석·나승빈·정한식
출판사. 테크빌교육

아이들과 함께 역사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3인의 선생님이 모였다. '체험 수업을 더욱 신나게!' 신봉석, '놀이 수업을 더욱 다양하게!' 나승빈, '사료 수업을 더욱 알차게!' 정한식 선생님까지.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궁리하고 발전시켜온 노력의 결과물인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하나, 본격 수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 수업을 제시한다. 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완벽 제공한다. 셋, 3인의 선생님 각각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수업 방법을 알려준다. 넷, 타 교과와의 연계 방법을 소개한다. 다섯, 실제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수업만 골라 담았다. 역사 수업이 두려운 선생님도, 역사 수업이 지루한 학생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리얼 초등 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그림. 송정섭
춘천 호반초등학교 선생님



SNS를 통해 웹툰을
그리는 초등교사 송정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라이프'를
연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교사를 위한 콘텐츠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섭섭한 라이프

HAPPY PARENT! HAPPY CHILD!

아이와 나 우리 사이 괜찮은 걸까?

#엄마도엄마는처음이야
#너는왜그런걸까
#엄마는잘하고있을까
#우리사이검사가필요해

#아빠도아빠는처음이야
#나만의맞춤형육아솔루션
#육아고민해결
#양육스트레스해소

아이와 나 우리 사이 괜찮을 거야!

부모공감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육아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온라인 부모자녀관계검사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문의 ☎1644-7429 www.bumoschool.com

부모자녀관계검사 QR코드

가치, 쌤동네

같이가치

교사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UPGRADE!

"교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잖아요."

"개인 교사가 가진 아이디어들이 모여 학교현장에 변화를 만들면 좋겠어요."

"교사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모델링을 만들어 주세요."

"현 수업의 실정에 맞는 현장감있는 내용,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내용이 다른 교사나 일반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하는 시대, 변화하는 쌤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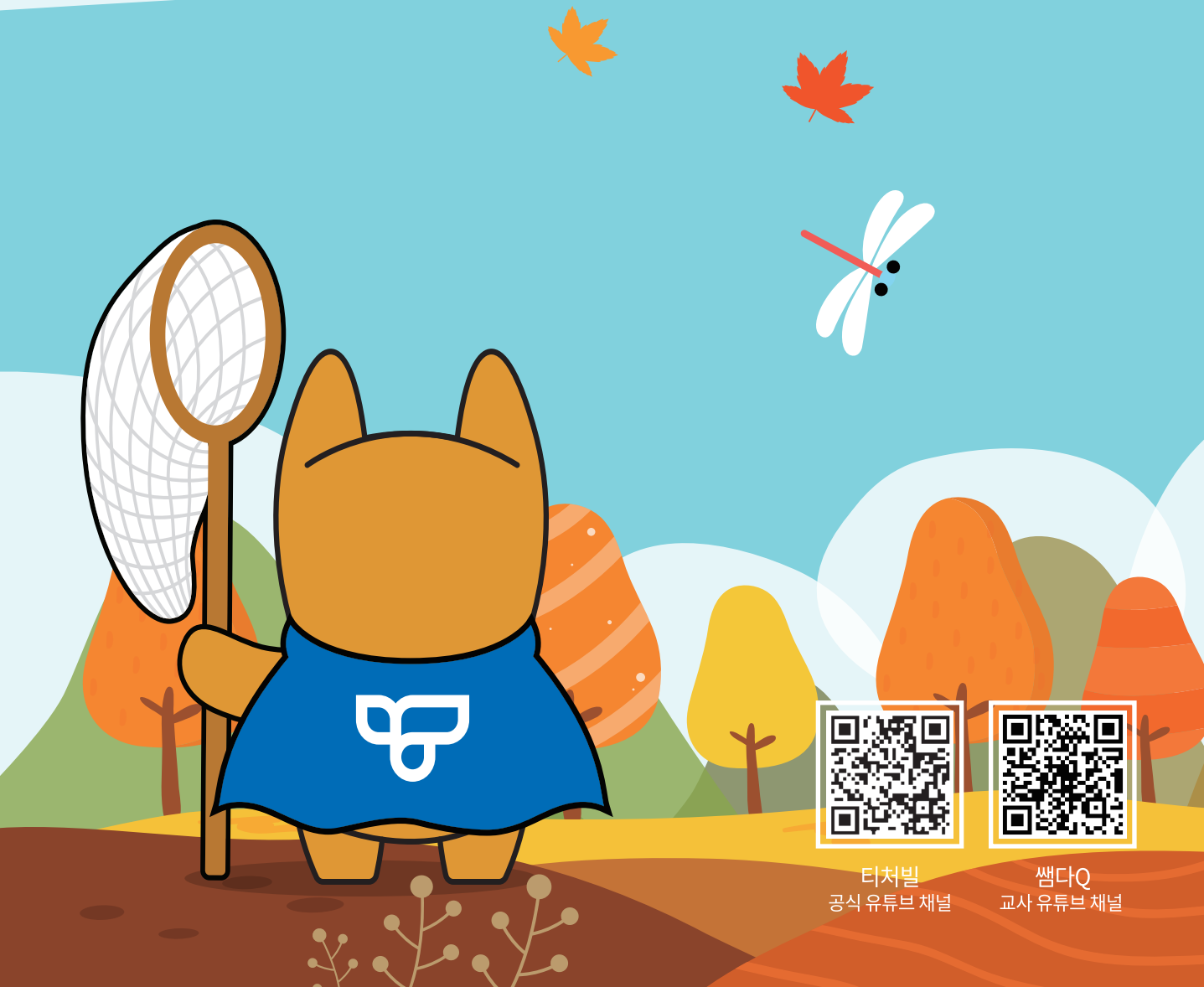
- 교사 특화 러닝 콘텐츠
- 교사가 만드는 자율 연수
- 학습 콘텐츠

위 모든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
자신만의 교원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쌤동네 문의 : 070-8282-0169 | https://ssam.teacherville.co.kr

EDUTECH FRONTIER
Tekville 테크빌교육(주)

티처빌연수원
쌤동네
티처몰
키즈티처빌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